

## 이달의 이슈 | 01

# 서울의 4種4色 1인가구, 대세로 자리 잡다



변 미 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  
miree21@s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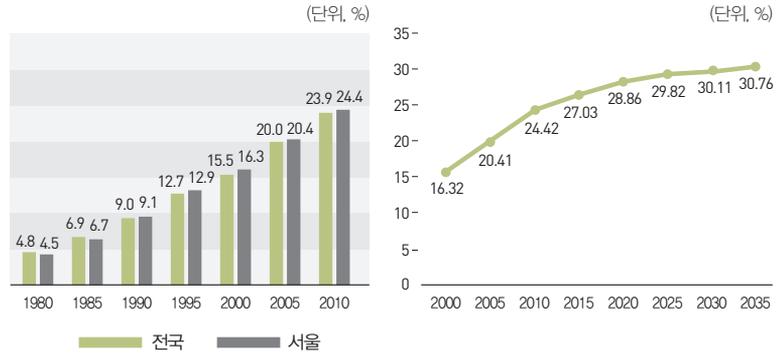
## 1. 혼자 사는 사람들, 30년 만에 열 배 이상 증가하다

“혹 그 사실 아세요? 지하철 2호선이 싱글벨트라는 거?” “싱글벨트, 그게 뭐예요?” “서울의 지하철 2호선 주변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지하철 노선을 싱글벨트라고 불러요.” “아하!~~”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우리 사회의 캠페인이었던 것이 불과 몇 십 년 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로 이미 들어 와 있다. 결코 길지 않은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2015년 기준 서울의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이다. 통계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국 전체가구 중 1인가구는 23.9%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24.4%에 달한다. 20년 전에는 그 비율이 9%에 지나지 않았다. 30년 전인 1980년, 1인가구란 말이 낯설었던 그 시기, 단지 4.5% 사람들만 혼자 살았다. 지난 30년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무려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그림 1〉 참조).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대 사회학박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근 연구: “시민참여형 미래서울 만들기”,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 분석” 등



자료 통계청, 2011,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가구, 주택부문)(<http://kostat.go.kr>)

자료 통계청, 2010, 장래가구추계

〈그림 1〉 서울시 1인가구 비중과 장기전망

지금까지 우리 사회 가구의 전형적인 모습인 2세대 4인으로 구성된 가구(부모와 2명의 자녀)는 23.5%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과 2인가구를 합한 소규모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47%에 달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구 구성원으로서 부부와 2명의 자녀로 이뤄진 가구는 더 이상 전형적이지 않다. 더욱이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함께 사는 3대 이상의 대가족은 이제 정말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1980년 4.47명이던 것이 1990년대 3명대로 떨어졌다가 2005년에는 2명대로 떨어지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2년 기준 서울의 평균 가구원 수는 2.69명이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에는 출산율 감소와 함께 1인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 2. 혼자 사는 사람들, 왜 갑자기 늘어났을까?

불과 몇 십 년의 짧은 기간 이뤄진 1인가구의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렵다. 1인가구의 증가 현상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非)혼과 만혼의 증가, 한국의 교육환경에 기인한 기러기 가족의 증가, 이혼·별거 등 경제적 빈곤이 원인인 가족 해체 등에 따른 비(非)자발적 독신층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여러 요인이 함께 맞물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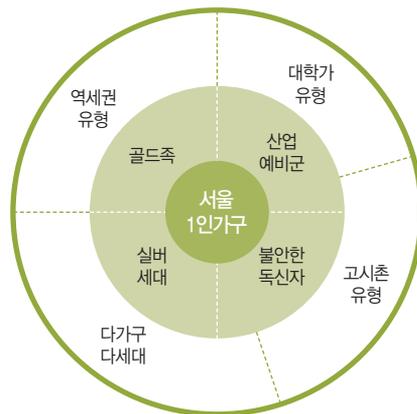
### 3. 각각 다른 이유, 그러나 꼬덕여지는 싱글들의 혼자 사는 이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의식의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 결혼을 더 이상 필수적인 인생 여정으로 여기지 않거나 결혼을 늦추면서 일정 기간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한다. 이는 남성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단어는 점차 사용빈도가 줄어들면서 골드 미스, 골드 미스터란 단어로 대체되고, 혼자 사는 것이 뭔가 ‘간지나는’ 것으로 여기는 문화도 한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에서 처음 결혼하는 나이인 초혼 연령은 남자가 32.2세, 여자 29.8세로 남녀 모두 30세가 되어야 처음 결혼을 한다.

또 다른 이유는 빠른 고령화의 결과이다. 이미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었고, 이 중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 한편, 사회문화적 현상인 기러기 가족,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 서울의 전체 이혼율은 7~8% 대이나 40~50대 이혼율은 12~13%로 전체 이혼율보다 높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압축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우리 사회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이다.

### 4. 4종4색 1인가구들

앞의 언급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서울의 1인가구 증가 원인이 복합적인 것처럼 1인가구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개별화된 4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결혼할 엄두를 못내는 소위 ‘산업예비군 그룹’,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가족의 해체, 실직, 기러기현상 등이 복합된 ‘불안한 독신자 그룹’, 65세 이상 고령의 ‘실버세대’ 1인가구, 마지막으로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독신의 삶을 누리는 ‘트렌드세터 골드족’이 그것으로 4종4색의 1인가구가 존재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4종4색 1인가구와 공간분포

### 도시의 트렌드세터, 골드족 1인가구

골드족 1인가구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혼자 사는 삶을 즐기는 집단이다.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자신의 일상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의 골드족 1인가구의 특성은 이들 중 과반수가 관리·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대졸 이상의 학력과 월평균 소득이 350만 원 이상인 소득자 비율이 높다. 이들은 도시의 새로운 가치의 '담지자'이자 도시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지난 10년 동안 1인가구 중 전문가 계층이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개인주의 가치의 확산, '필수 아닌 선택'으로서의 결혼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화려한 싱글' 집단의 성장 요인이다. 시장에서는 골드족을 겨냥한 문화, 쇼핑, 운동과 건강 관련 영역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개장한 한 고급백화점은 '남자들의 럭셔리 놀이터'라는 타이틀로 골드 미스터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리시한 맵시 있는 1인가구들은 도시에 새로운 문화 활력을 가져오고, 고유한 싱글 문화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도시의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는 곳들은 '쿨한 싱글'들의 아지트로써 도시 문화를 만들고 있다.

### 불안한 독신자 그룹

불안한 독신자 그룹은 중장년층 이혼율의 증가(서울은 전 연령층의 이혼율보다 40~50대 연령층의 이혼율이 2배 가까이 높다)와 한국사회의 교육문제와 관련한 기러기 가족의 증가, 중장년 실업 문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이다. 경제·사회적 약자로서 불안한 독신자 그룹에게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다른 타인들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가는 의미를 갖는다. '강제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회와의 '연결'이 약하기 때문에 떠돌아다니게 된다. 그 결과로 사회적 통합성,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극단적으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비(非)사회적 현상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있다.

### 혼자 밥 먹는 것이 싫은 산업예비군들

산업예비군 그룹은 아직 사회적 직업을 갖지 못한 젊은 20~30대 취업 준비생이거나 비정규직 1인가구이다. 물론 사무직종에 종사하는 1인가구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 부류는 사무직종과 블루칼라 직종의 경계에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밥 먹는 문제'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는 비율이 높고, 저녁도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때우는' 것이 되었다. 최근 나타나는 '사회적 가족

(소셜팸)’이나 ‘함께 밥먹기(소셜다이닝)’ 등의 현상은 젊은 1인가구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 고령화에 따른 실버세대 1인가구

한국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의 고령인구는 2013년 10%를 넘어섰다. 이 비율이 2019년이 되면 14.3%로 증가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에 따라 실버세대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실버세대 1인가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절대 빈곤 상태인 독거노인과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액티브실버 집단이 있다. 액티브실버를 위한 주거, 여가 등의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5. 가족의 외연을 확장하는 사회적 가족의 형성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1인가구 증가 현상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다. 서구사회와 비교해볼 때, 북유럽국가들의 1인가구 비율은 거의 40%에 달하며, 미국의 1인가구 비율도 30%대 수준이고, 일본의 1인가구 비율은 우리와 비슷하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사회의 1인가구 증가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4명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직도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인데 사회는 이미 1~2인가구가 대세가 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1인가구가 있으며, 이들이 야기할 사회문제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른바 골드족 1인가구는 스스로 선택한 혼자 사는 삶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고 싱글문화도 창출하는 긍정적 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도시문화의 트렌드세터로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다만 골드족들은 주거 이동성이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주거선택에서 아직은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이 4인 가구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탓이 크다. 따라서 다양화된 가구 규모에 맞는 주거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골드족과 구분되는 나머지 세 집단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다. 이들 집단은 스스로 원해서 혼자 사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들은 어쩔 수 없는 독신그룹이다. 어떤 의미에서 소수자로서 사회와의 연결이 약화된 채 혼자 쓸쓸히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비자발적 1인가구로서의 청년, 여성, 중장년층, 노인 등은 일차적

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현저히 낮다. 따라서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성 1인가구는 주거 안정성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들에게는 커뮤니티의 안전성이 절실한 문제이다. 지역·문화적 요소를 통해 공동체성을 복원시킨다면 주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되기 쉬울 것이다.

불안한 독신자그룹 등 경제사회적 약자인 1인가구 그룹을 위해서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혼자 사는 40대 중년층은 부부가구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 원하지 않았지만 혼자 살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적 연결망의 역할을 복원하고,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실버세대 1인가구를 위해서는 빈곤한 독거노인 대책과 함께 일정 정도의 경제력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된 실버세대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노인자살률은 노인 10만 명당 64.9명으로 고령사회인 일본의 2배가 넘는다. 이는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이다. 전체 노인 중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교류가 없는 독거노인이 전체의 절반가량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실버 싱글 마이너리티 지원체계를 확장하며, 동시에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1인가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가구형태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비자발적’ 1인가구에 대한 정책지원을 개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혼자 사는 1인가구, 그렇지만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모자이크화된 다양성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다.

#### 참고문헌

1. 변미리 외, 2015,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연구원·서울시의회
2. 변미리, 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Vol.21, No.3
3. Combat Poverty Agency, 2010, 「Access to housing for one-person households in Ireland」
4. EuroStat, 2014, 「EuroStat regional yearbook 2014」